

# 統一教育의 方向 模索

김 항 원

(제주대학교 교수)

目	次
I. 머리말	6.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統一文化의 創造
II. 統一教育의 方向 설정	IV. 民主市民教育
1. 統一의 意味	1. 人間 尊嚴性 涵養
2. 統一教育의 意味	2. 民主的인 價値와 態度 함양
3. 統一國家의 理念	3. 合理的인 問題解決能力과 意思決定能力의 신장
4. 統一教育의 目標	4. 民主的인 原理에  적합한 教育 方法
III. 民族共同體 形成 教育	5. 參與的인 政治文化 形成
1. 民族史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評價	6. 한국인으로서의 正體性 함양
2. 分斷의 歷史的 背景과 過程	V. 맺는말
3. 統一에 障礙가 되는 國內外 環境	參考文獻
4. 民族 同質性  회복	
5. 統一國家의 理念과 體制	

## I. 머리말

금년은 한민족이 분단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은 국토의 분단을 고착화 시키고 민족의 영구 분단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차이는 민족의 이질화를 촉진시켜왔다. 그러나 러시아와 동구의 민주화와 독일의 통일은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민족의 통일 과정을 단축시키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통일교육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남북한은 넓은 의미의 통일교육을 해왔다. 남한은 반공교육을 주로 해오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통일 안보교육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통일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와 주체사상 교육을 계속해온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주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서로 적대감을 심어주며 자기체제의 우월성을 심어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서독은 수십년간의 정치교육과 동서독간에 인적·물적 교류를 한 후에 정치적 통일을 했는데도 민족의 통일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 통일이 된지 4년이 지났지만 독일인들은 “한민족이라고 느낀다는 대답은 동독에서는 겨우 28퍼센트, 서독에서는 47퍼센트”<sup>1)</sup>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통일 보다 마음의 통일 즉 민족의 통일은 더 어려운 것이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논의해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고 필요한 것이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통일의 의미와 단계, 통일국가의 이념 및 통일교육의 목표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통일과 통일교육의 의미를 알아보고 통일국가의 이념을 상정해 본 후, 통일교육의 목표를 제시하려 한다. 다음에 통일교육의 방향을 크게 민족공동체 형성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서 기술하려 한다.

## Ⅱ. 統一教育 方向의 設定

### 1. 統一의 意味

통일은 정치적 통일과 민족적 통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치적 통일이란 어떤 정치체계가 하나의 국가 형태로 통합되는 것이며, 민족적 통일이란 분단된 민족이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인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국의 재통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통합과는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보편적 의미는 “두개 이상의 주권적 행위 주체가 하나의 행위 주체로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일정 영역내의 인간

1) 균터 류터, “독일 통일전과 후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의의와 위상,” 전득주 외 공편,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학문사, 1994. p.61.

집단내에서 개개인간의 이해와 견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여 필요한 변경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인 공동체의식이 구성원들간에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기구가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sup>2)</sup>라고 말할 수 있다.

## 2. 統一教育의 意味

통일교육이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sup>3)</sup> 조금더 넓은 의미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남북 분단을 하루 속히 극복하여 자유와 복지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실현되는 통일국가를 완성하고 더 나아가 해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에 요구되는 지식, 태도, 가치관, 사고와 논의능력 및 행위규범과 절차를 이해하고 습득케하는 교육을 말한다.<sup>4)</sup>

이상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 통일국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일대비 교육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등의 지식, 지적 기능, 가치 태도, 행동 규범 등을 국민에게 습득시키는 학교 및 사회교육이다. 그리고 통일국가를 위한 교육은 통일국가의 이념인 민족 구성원의 자유, 인권, 행복 및 평화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의 시민 자질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지적 기능, 가치 태도, 행동 규범 등을 습득케하는 학교 및 사회교육이다.<sup>5)</sup>

## 3. 統一國家의 理念

통일의 궁극적 목표가 단일정부, 단일국가 실현, 그 자체가 아니고 한 뿔쫄 한 겨레로서의 한국민족이 보다 복되고 정의롭고 보람되고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생활, 즉 삶

2) 이상우, “민족통일의 과제,”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1984, p. 161.

3) 통일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1995, p. 4.

4) 김태완, “남북 이질성 극복을 위한 통일교육,” 「教育學研究」 Vol. 33, No. 2, 1995, p. 165.

5) 김항원, “統一教育 方案의 探索,” 「東아시아研究論叢」 제3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2, p. 70.

의 질을 높이는데 있을 것이다.<sup>6)</sup> 통일국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7)</sup>

따라서 통일한국의 국가이념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기본 가치가 구현되며,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4. 統一教育의 目標

통일교육의 목표는 자주적·민주적·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통일의 궁극적 목표가 실현되며,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어 민족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국가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첫째, 자주적·민주적·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인 이해 기반의 확충과 함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창출을 위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건전한 행위규범을 온 국민들이 갖도록하며,

둘째, 통일조국의 형성과정과 장차 통일조국이 경험하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서의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능력을 신장하고,

셋째, 세계속의 새로운 통일조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세계발전을 위한 한민족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통일교육의 목표를 제시해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 민족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능력을 증진시키고,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객관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자주적·민주적·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됨을 인식시키며, 이런 통일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사고체계를 갖게한다.

둘째, 남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그 차이를 알게하며, 문화적 이질성 보다는 동질성을 찾고 강조함으로써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참여하는

6) 梁性喆, "독일통일 실현과 한반도 통일 전망," 「남북한 통합론」, 인간사랑, 1992, pp.10-11.

7)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본 해설 자료)」, 1989.

8) 통일원, 전개서, p. 4.

자세를 가지게 한다.

셋째, 통일에 장애가 되는 국내외 환경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넷째, 통일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창출해가는 과정을 알게하며, 통일에 대한 상이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준다.

다섯째, 통일조국의 이념과 미래상을 알게하고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며, 통일조국은 인간답고 자유스러우며 평화롭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할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길러준다.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세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길러준다.

제 II 장에서 기술한 통일과 통일교육의 의미, 통일국가의 이념, 그리고 통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통일교육의 방향을 크게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주시민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9)</sup>

첫째,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기반 확충을 위한 정치·사회적 제반 환경의 조성 등 다각적 노력 전개,

둘째, 통일역량 증대와 통일된 이후의 삶의 질에 핵심적 관건이 되는 민주시민적 자질과 품성을 통일교육의 주요내용으로 도입,

셋째,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민주주의적 삶과 제도의 정착을 통한 일관성있는 원리하에 추진,

넷째, 각급학교 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나 교육기관 수준에 맞게 통일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의 연계성 및 일관성 도모 등이다.

9) 교육정책자문회의, 「南北統一에 對備하는 教育方案」, 1990. 9., p. VII.

### Ⅲ. 民族共同體 形成 敎育

수천년 동안 한반도에서 생존해온 우리 민족은 민족공동체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50년간의 남북 분단은 민족의 이질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위기감을 주고 있다.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민족공동체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 '민족성'이라는 추상적인 결속력과, 이를 바탕으로 현실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형성된 '국가 목표'라는 구체적인 결속력으로 이루어진 민족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인류 보편의 가치추구와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은 자주성을 갖고 자유와 복지가 실현되며 평화가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 민족공동체는 다름아닌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약속하고 나아가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민족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 수립되어야 한다.<sup>12)</sup>

첫째, 새로운 민족공동체는 남북한간의 대립·경쟁을 극복하고 조화점을 찾음으로써 통일이전 남북한 체제가 지향하였던 이념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민족공동체의 내용은 국제사회의 발전 추세 및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체계와 부합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각기 체제 대립에서 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폐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 개방, 민주화 등으로 요약되는 세계적 조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통일한국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민족공동체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사회내 특정집단이나 계급, 혹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주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사회내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체계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 형성 교육은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동질성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에서 이루

10) 한홍수,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의식의 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217.

11) 李洪九,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초와 실천방안,"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1990, pp.26-27.

12) 윤덕희, "統一文化의 概念 정립과 形成方向 연구," 「統一文化研究(上)」, 民族統一研究院, 1994, p.27.

어져야 한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 전통, 문화를 재확인하고, 유지 발전시켜나가면서 남북한 동포 사이에 내재해 있는 적대감과 이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동시에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민족이라는 '우리 의식'을 확산시키면서 민족공동체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형성될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족공동체 형성 교육의 내용을 앞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설정해 보면,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통일에 장애가 되는 국내외 환경, 문화적 이질성과 동질성,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 그리고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통일문화의 창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내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교육방법을 차례대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 1. 民族史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評價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무수한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민족의 자존을 지켜왔고 훌륭한 문화를 창조 발전시켜왔다. 천여년 이상을 통일 민족국가를 유지해왔으며, 분단은 50년 밖에 되지 않는다.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주제로 주어서 소집단 별로 토의를 한 후에 발표하게 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고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능력을 키워준다.

## 2. 分斷의 歷史的 背景과 過程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에 대한 여러 견해와 쟁점을 소개하고 이념적 사슬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한다. 분단의 원인에 대해서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적인 상황을 다 같이 검토하게 한다.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많은 자료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됨을 지적하고 그 자료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일방성과 편파성을 먼저 알도록 한다. 그 다음에 자료들을 조사 검토하여 발표하게 하거나 토의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때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 統一에 障礙가 되는 國內外 環境

국내적으로는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경제적 부담 등을 내세워 현상 유지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 국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알게하며 통일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임을 인식시킨다. 통일은 자주적, 점진적, 민주적,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지시킨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 자국의 이익추구 때문에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환경도 우리 민족의 통일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며, 통일에 긍정적인 국제환경은 잘 이용해서 통일을 앞당겨야 됨을 주지시킨다.

### 4. 民族 同質性 회복

남북한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사회적으로 남한은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인데 비해서, 북한은 모든 재산을 국유 내지 공유화시켰고 국민의 기본권이 많은 제약을 받는 폐쇄사회이다. 문화적으로는 남한에는 전통문화가 많이 보존되고 있는데 비해, 북한에는 전통문화가 더 많이 파괴되고 있으며, 언어, 문학, 예술, 종교 등이 이데올로기에 크게 오염되고 있다. 언어와 역사의 이질화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나 수천년 동안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민족이므로 아직도 이질화 보다는 동질성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일반 민중들 속에 공유되고 있는 기층 문화의 동질성은 유지되고 있으리라 추정된다. 따라서 민족문화의 이질화 내용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동질성을 찾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할 것이다.

매스컴에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찾아 홍보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의

문화교류와 문화행사를 통해서 동질적인 기층문화의 전시회를 연다든지 학술 세미나를 자주 열어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한다.

## 5. 統一國家의 理念과 體制

통일한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유·평등·복지가 구현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체제는 경제적으로 능률과 형평의 조화를 이루는 시장경제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세계의 보편적 추세와 일치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기약하고 온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6.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統一文化의 創造

수천년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전통문화는 통일문화 형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이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민족과 전통의 원형을 바탕으로 문화적 동질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근간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인류 보편적인 문화체계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전통문화의 특수성으로 보완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우리의 것으로 토착화해 갈 수 있다.<sup>13)</sup>

통일문화란 남북동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통일에 관한 이념(가치관, 신념), 지식, 법률 정치와 경제제도, 예술, 도덕 등의 총체적 생활양식이며, 기존문화와 달리 새로이 형성되거나 창조되는 성격을 가지며, 남북한 동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놓아야 할 생활양식을 말한다.<sup>14)</sup>

통일문화는 남북한 동포가 공통으로 지녀야할 신념, 가치관,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 통일문화는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와 통일된 후에 이땅에 자리잡아야 할 문화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통일문화는 민족사의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일관하여 흘러내리는 당위성과 세계

13) 상계서, p. 81.

14) 양홍모, "통일문화 형성론 서설," 국토통일원, 「통일논총」 제5권 제1호, 1985, p. 6.

사의 주류에서 본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아울러 수용하는 우리 민족의 새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 확인을 토대로 그것을 여과시켜 민족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발전과 더불어 통일지향적이며 미래 발전 지향적인 보다 높은 차원의 새 민족문화로 통합·창조하는 것을 가리킨다.<sup>15)</sup>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시킴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며, 민족정체성을 심어준다. 통일문화에 대해서는 학술세미나와 연구 지원을 통해서 통일문화의 개념, 내용, 문화창조의 방향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매스컴을 통해서 전문가의 강연이나 대담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리고 신문에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특집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 IV. 民主市民教育

우리 민족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이 땅위에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된 통일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되기 이전에 남한만이라도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민주적인 성숙도가 높아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통일국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요청된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민주시민은 인간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며, 민주주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굳은 신념을 지니며,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 및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각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첫째, 민주주의의 이념과 사상에 충실하되 각국의 전통과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시민적 행동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둘째, 민주정치를 이룩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태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시되고 있다.

15) 김영준, "통일문화 창조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 방안," 『統一文化研究(下)』, 民族統一研究院, 1994, pp.474-475.

16)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1992, pp.267-273.

넷째, 공동체 생활의 기본적 규범을 교육목표로서 강조하였다.

다섯째, 국가적인 원로 및 상징을 보호 또는 존중하도록 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의 체제와 운영면에서 각국의 특징을 비교할 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17)</sup>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통합적이면서도 다양성을 견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셋째,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넷째,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체제는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민주적 원리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중시하고 있다.

제 II 장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넷째,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원리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택해야 한다.

다섯째,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여섯째,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교육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차례대로 기술하려고 한다.

## 1. 人間 尊嚴性 涵養

민주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사상이며 제도이다. 인간을 수단이 아니고 목적으로 대하고 자기의 인권은 물론 타인의 인권도 똑같이 존중하

17) 상계서, pp. 273-277.

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의 방법도 인간주의 교육이나 인격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자 자신이 인간적이고 인격자가 되어서 피교육자를 가치로운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 2. 民主的인 價値와 態度 함양

민주주의는 공동생활의 양식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민 개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가 내면화되어야 한다.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행위와 가치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적인 태도는 준법정신 및 질서의식, 관용, 동료시민을 신뢰하는 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식, 정치지도자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의식, 정직성 등을 들 수 있다.<sup>18)</sup>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토의학습이나 소집단학습을 자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실환경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 학교, 직장, 사회, 현실 정치 분위기가 민주적이 될 때,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가 내면화될 수 있는 것이다.

10개국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실 수업 보다는 교실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지적이고 덜 권위주의적이며, 더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되었던 학교 출신들이었다.<sup>19)</sup>

## 3. 合理的인 問題解決能力과 意思決定能力의 신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나 통일국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요청된다. 특히 통일문제와 같이 이데올로기 대립이 첨예한 문제일수록 국민들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자기 이데올로기나 의견만이 옳다고 주

18) 상계서, p.47.

19) Judith V. Torney, A. N. Oppenheim and Russel F. Farnen, *Civic Education in Ten Countries* (Sweden : Almqvist & Wiksell, Uppsala, 1975 ), p.18.

장한다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막혀버리고 폭력이나 힘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용적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 4. 民主的인 原理에 적합한 教育方法

민주시민의 자질은 주입식·설명식 수업 방법에 의해서 길러질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방법도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교육을 해야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방법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생활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피교육자가 중심이 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방적인 수업이다.

포웰(L. E. Powell)은 가장 효율적인 민주시민 교육 방법으로 활동적인 학습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참여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sup>20)</sup>

그리고 잉글(S. H. Engle)은 반성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를 확인하고 정의하기, 탐색적인 질문을 사용하기, 가치 가정들을 확인하기, 대안들을 확인하고 결과들을 예측하기, 결정에 도달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다.<sup>21)</sup>

민주적인 원리에 적합한 교육방법 중에 대표적인 기법으로 토의법과 소집단 협동수업을 들 수 있다.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장에 대하여 관용의 정신을 배우고 다수결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집단 협동수업을 통해서 5-6명의 소집단별로 공동의 과제를 서로 협력하면서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높이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교육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탐구수업이나 문제해결식 수업이 바람직하다.

20) 최현섭, "미국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1992, p.157. 재인용.

21) Shirley H. Engle & Anna S. Ochoa,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88 ), pp.169-174.

## 5. 參與的인 政治文化 形成

민주주의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정치문화가 민주적이고 참여적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민주적인 제도와 정치문화가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한다.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은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매스컴, 정치가 민주적인 참여문화를 지지하고 권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나 통일을 위해서도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해가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민주정치가 잘 행해진다면 이러한 정치문화 형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나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6. 한국인으로서의 正體性 함양

민주시민교육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길러주며,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무국적적인 민주시민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인 한국인은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아니라 열린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당당히 경쟁하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세계시민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교육도 통일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V. 맺는 말

통일교육의 의미와 통일국가의 이념 및 통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통일교육의 방향을 크게 민족공동체 형성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으로 설정하였다.

민족공동체 형성 교육의 방향으로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며,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고, 통일에 장애가 되는 국내외 환경을 인

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며, 민족의 이질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민족동질성을 찾고 강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를 인식하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통일문화의 창조에 노력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심어주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게 하며,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게 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킨다. 또한 민주적인 원리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독일의 통일에서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을 앞당기며, 통일국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일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교육정책자문회의. 「南北統一에 對備하는 敎育方案」. 1990. 9.
-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본 해설 자료)」, 1989.
- 균터 류터. “독일 통일전과 후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의의와 위상.” 전득주의 공편. 「민주시민 교육의 이해」. 학문사, 1994.
- 김영준. “통일문화 창조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 방안.” 「統一文化研究 (下)」. 民族統一研究院, 1994.
- 김태완. “남북 이질성 극복을 위한 통일교육.” 「教育學研究」. Vol. 33. No. 2., 1995.
- 김항원. “統一敎育 方案의 探索.” 「東아시아研究論叢」 제3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1992.
- 梁性喆. “독일통일 실현과 한반도 통일 전망.” 「남북한 통합론」. 인간사랑, 1992.
- 양홍모. “통일문화 형성론 서설.” 국토통일원. 「통일논총」 제5권 제1호, 1985.
- 윤덕희. “統一文化의 概念 정립과 形成方向 연구.” 「統一文化研究 (上)」. 民族統一研究院, 1994.
- 이상우. “민족통일의 과제.”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1984.
- 李洪九.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와 실천방안.”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1990.
-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1992.
- 최현섭. “미국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1992.
- 통일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1995.
- 한홍수.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의식의 탐구」.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85.
- Engle, Shirley H. & Ochoa, Anna S.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88.
- Torney, Judith V., A. N. Oppenheim and Russel F. Farnen. *Civic Education in Ten Countries*. Sweden : Almquist & Wiksell. Uppsala, 1975.